“올해도 국민에 희망 쏜다”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훈련 개시… 동계 亞게임 등 선전 다짐

국가대표 선수들의 산실인 태릉선수촌이 2011년 힘찬 기지개를 켰다.

대한체육회는 1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1년 국가대표 선수 훈련 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훈련 개시식에는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14종목 344명의 선수와 71명의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아시안게임 종합 2위 수성 등 힘차게 날개를 펼쳤던 한국 스포츠는 올해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자며 결의를 다졌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올해도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 세계에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길 바란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예선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큼 모두가 본선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퇴임을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동안 고마웠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국민의 행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 올해도 체육계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성공적으로 치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서울시청)과 펜싱의 남현희(성남시청)는 선수 대표로 나와 선서하며 선전을 다짐했다. 공식적인 강화훈련을 시작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1월 말부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8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모인 이들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매기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체육계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개정 소식에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한국 체육의 뿌리를 흔드는 지방세법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11년 국가대표 선수 훈련 개시식에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스승’ 노민상 감독 전격 사퇴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제2 박태환 발굴”

박태환(22·단국대)을 세계적 수영스타로 키운 노민상(55·사진) 경영대표팀 감독이 전격 사의를 밝혔다.

노민상 감독은 13일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포상식에 참석하고 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 감독은 “우리 수영을 열렬히 응원해 준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박태환이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을 치르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에서는 물러나지만 대한수영연맹과 관계는 유지하면서 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꿈이 하나 있다면 박태환이 지금 한국 수영 기둥이지만 제2의 박태환, 제3의 박태환을 어디든지 쫓아가서 발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감독은 “어디든 불러주면 달려가서 도와줄 것이다. 상당히 마음 아프지만 훌륭한 후배들을 위해 이쯤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노 감독은 수영 명문인 오산중을 거쳐 오산고에 진학했지만, 선수로서 빛을 보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다. 1980년 군 복무를 마치고 선수가 아닌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 감독은 박태환을 7살 때부터 가르쳤다. 천식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5살 때 수영을 시작한 박태환은 노 감독의 수영 클럽을 찾았고, 박태환의 타고난 지구력과 폐활량을 본 노 감독은 가능성을 보고 줄곧 그를 지도해왔다.

노 감독은 경영대표팀 감독을 계속 맡아 박태환을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었고, 2009년에는 소강 체육대상 지도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문도원 2단, 세계 바둑계 돌풍

정관장배 6연승 대회 최다연승 타이기록

문도원(19세) 2단이 개막 후 6연승을 내달으며 정관장배 최다 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문도원은 13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9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1라운드 제6국에 출전해 중국의 송룽후이 5단을 맞아 흑으로 205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앞서 열렸던 5판 모두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문도원은 13일 대국에서는 무리하게 흑대마를 공격해 온 상대의 무리수를 침착하게 받아넘기며 우세를 점령했다.

한국의 선봉장으로 출전해 1월 8일 개막전에서 아오키 기쿠요 8단을 이기고 서전을 장식했던 문도원은 루자 2단, 지넨 가오리 3단, 리허 3단, 무카이 치아키 4단에 이어 제7회 때 최다연승을 올렸던 송룽후이마저 물리치며 6연승으로 대회 최다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총 7판이 열리는 1라운드에서 6판을 이긴 문도원은 14일 일본의 세 번째 선수와의 대결에서 대회 최다연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무카이 치아키 4단에 1집 반을 이긴 것을 제외하면 불계나 10집이 넘는 대차로 상대를 제압하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만큼 1차전 싹쓸이도 기대해볼 만하다.

한국은 문도원의 1차전 맹활약으로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6연승의 문도원은 14일 대국에 나서면서 대국료 1050만원과 함께 연승 부상으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정관장 지삼 20지 8세트를 받게 됐다. 한·중·일 3개국에서 각각 5명씩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는 정관장배는 남자대회인 농심배와 같은 형식이어서 ‘여자 농심배’로 불린다. 우승 상금은 7500만원이다. /연합뉴스

‘거포’ 김연경 日떠나 이탈리아행?

큰 무대 진출 뜻 밝혀

일본 여자프로배구에서 아시아의 거포로 입지를 굳힌 김연경(23·JT 마블러스)이 일본을 떠나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연경은 13일 “일본에서도 경험을 쌓은 만큼 이번 시즌이 끝나면 큰 무대로 나가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김연경이 원하는 곳은 세계 최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탈리아다.

흥국생명 소속인 김연경은 JT에 2년간 임대됐고 2010-2011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난다. 한국에 돌아올 수도, 흥국생명의 허락을 받아 이탈리아에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연경은 해외에서 계속 뛰고 싶다는 속내를 나타낸 것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대표팀의 주포로 맹활약했던 김연경은 체력이 떨어져 감기·몸살로 지난달 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연말부터 기량을 회복, 팀을 리그 1위로 이끌고 진가를 발휘했다.

12월26일 도요타와 경기에서 33점을 내리꽂았고 1월8일 NEC와 경기에서는 14점, 9일 덴소와 경기에서도 16점을 퍼붓고 승리에 앞장섰다.

김연경이 빠져 시즌 초반 리그 중 하위권으로 떨어졌던 JT는 최근 5연승을 내달리며 7승3패를 거두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총득점 1위, 공격성공률 3위를 차지하며 일본 무대를 평정한 김연경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연합뉴스

이창호·최철한 농심배 동반 출격

국수(國手) 자리를 놓고 혈전을 펼치고 있는 이창호와 최철한이 이번에는 동지가 되어 상하이 원정길에 오른다.

세계유일의 국가대항 단체전 ‘제1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라운드’가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속개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10회 우승에 도전한다.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이세돌이 2연승 후 낙마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부산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목진석 9단이 4연승을 달리던 셰허 7단을 잡아주었고 2연승의 다카오 신지 9단은 최철한 9단이 막아 힘의 균형을 맞춰놓았다.

현재 각국의 생존자는 한국이 이창호 9단, 최철한 9단 등 2명, 중국이 쿵제 9단, 저우뤼양 5단 등 2명이며 일본은 유키 사토시 9단이 홀로 남았다. 결국 우승은 천원전과 국수전 2개의 타이틀전에서 절호의 기세를 보이는 최철한과 ‘농심배 수호신’ 이창호의 한국팀과 자국랭킹 1,2위의 정예군이 남은 중국 간의 다툼이 될 전망이다.

최종라운드 첫 주자로는 최철한 9단이 나선다. 중국의 4번째 선수와 맞서게 되는데 저우뤼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대전적에서는 2승무패로 최철한이 앞서있지만 저우뤼양도 한국기사들에게 28승11패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라운딩 따뜻하게… 무등산CC 카트에 가스스토브

무등산CC가 광주·전남지역 골프장에서는 최초로 카트내에 가스스토브를 설치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가스스토브 설치는 정상균 사장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으로 카트내의 온도를 10도이상 높여 겨울 골퍼들의 라운딩을 돕고 있다는게 무등산 CC의 설명이다.

정상균 사장은 “겨울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이 날씨인데 타지역에서 본 경험이 생각나 직접 고안하게 되었다”며 “고객만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

대표이사 노찬구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곡동	1120/3954	27억9천	15억6천2백	4층건물
	월곡동	115평	5억4천	2억4천	오페라사우나2층
	월계동	365/1238	12억2천3백	8억5천6백	유흥6층건물
	쌍암동	512/651	9억3천6백	6억5천5백	유흥2층건물
	장덕동	3070/498	26억3 천9백	18억4천7백	주유소
	신창동	148/45	2억1천6백	7천7백	드림프리자2층
북구	신용동	2311/712	20억7백	16억5백	주유소
	문흥동	337/1305	8억7천6백	6억1천3백	5층건물
	중흥동	737/722	11억5천3백	6억4천5백	3층건물
	신안동	330/108	6억8천	4억7천6백	5층건물
남구	주월동	715/3505	36억5천3백	25억5천7백	7층건물
동구	지산동	1060/36	4억8천9백	3억4천2백	단층
서구	세하동	651/165	2억7천2백	1억9천	단층
	세하동	1730/456	12억3천9백	8억6천7백	주유소
장성군	장성읍	438/617	6억5천	2억9천1 백	식당.당구장
담양군	금성면	691/220	1억4천8백	8천3백	단층식당
	월산면	7795/1052	6억4천3백	2억8천8백	기든.주택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남구	월산동	206/196	1억5천7백	1억1천
북구	두암동	181/320	2억5천1 백	1억4천1백
광산구	월곡동	196/220	1억3천4백	9천3백
서구	벽진동	426/184	2억9백	1억4천6백
	쌍촌동	185/219	1억4천2백	9천9백
북구	양산동	316/140	1억2천7백	8천8백
	동림동	338/120	1억8천5백	8천2백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운암동	375/815	6억8천6백	3억8천4백
광산구	쌍암동	992/1357	17억4천4백	9억7천6백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장덕동	1711/1082	7억9천3백	5억5천5백
	안청동	2975/950	7억7천3백	
장성군	황룡면	10547/3870	29억8천3백	19억9백
담양군	대전면	1268/494	3억4천4백	2억4천1백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신창동	심능	109/33	1억3천	3억2천4백
	장덕동	진흥루벤스	121/36	1억9천	1억3천3백
	월계동	벽산	145/44	1억8천	1억2천6백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	105/32	1억2천	8천4백
	봉선동	금호	195/59	2억4천	1억6천8백
	송하동	금호타운	109/33	9천5백	6천6백
	진월동	중흥	109/33	9천	7천2백
동구	운림동	라인	109/33	1억1천	
북구	문흥동	대주	142/43	1억3천	
	문흥동	우성	142/43	1억2천	8천4백
	문흥동	해광한신	105/32	9천5백	
	동림동	삼익	105/32	9천3백	
	연제동	대주피오레	112/34	1억5천5백	1억1천2백
	오치동	금호	109/33	9천5백	6천5백
	용봉동	쌍용예가	178/54	3억2천5백	2억2천7백
	용봉동	꿈에그린	146/44	2억3천5백	1억6천4백
	용봉동	삼성	158/48	1억4천	9천8백

▶토지(전,답,임야,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곡성군	석곡면	임야	1392406/421202	6억8천3백	
북구	지야동	대지	542/164	1억2천4백	6천9백
남구	화장동	목장용지	2261/683	6천4백	4천5백
서구	매월동	전	1399/423	3억4천1백	
광산구	흑석동	답	462/139	1억1천	7천7백
	수완동	답	496/150	1억4천3백	
나주시	이창동	대지	300/90	5천4백	3천6백
장성군	남면	답	2163/654	4천3백	
	삼서면	대.답	4485/1356	6천2백	
화순군	도곡면	대지	509/154	1억4백	5천8백
	춘양면	임야	23008/6959	2천7백	1천5백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수완동	662/301	3억9천4백	2억2천	수원가든
	월곡동	206/153	2억1백	1억1천2백	단층건물
	월계동	230/393	2억8천3백	1억9천8백	3층건물
남구	백운동	347/273	3억4천3백	1억9천2백	단층건물
	주월동	185/395	2억5천1백	1억7천5백	3층건물
북구	신안동	211/291	3억5백	1억8천7백	3층건물
	중흥동	199/585	3억6천6백	2억5천6백	4층건물
	오치동	200/379	2억3천5백	1억6천4백	3층건물
	두암동	257/621	4억4천2백	3억9백	3층건물
	풍향동	125/127	1억6천4백	1억1천4백	3층건물
서구	풍암동	225/567	4억6천6백	3억2천6백	3층건물
	쌍촌동	205/325	3억4천8백	1억9천5백	3층건물
담양군	창평면	11068/3348	7억9천5백	5억5천6백	창고단층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계동	원룸	257/438	2억9천3백	2억5백
	송정동	원룸	423/578	5억1천7백	3억6천1백
	송정동	원룸	493/811	6억4천5백	3억6천1백
북구	오치동	원룸	304/516	4억5천4백	2억5천4백
	신안동	원룸	367/656	6억5천2백	4억5천6백
	두암동	원룸	337/450	3억8천3백	2억4천5백
	누문동	원룸	271/596	5억6천7백	3억1천8백
서구	금호동	원룸	333/233	3억3천3백	2억3천3백
	치평동	랜드피아	16평	5천6백	3천9백

추천물건

광산구 쌍암동 근린시설
대지1954평 연건평1078평 (2층건물)광주우편집중국근처
2002년 건축 패밀리레스토랑,대형음식점,프랜차이즈적합
감정가 71억4천2백 최저가49억9천9백

광산구 쌍암동 근린시설
대지155평 연건평197평 롯데마트서측인근
2008년건축 1층대형식당 2층 유흥
감정가9억3천6백 최저가6억5천5백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근린시설
대지2358평 건물318평 .가든(음식점) 팬션업적합
97년 건축.감정가6억4천3백최저가2억8천8백

북구 신용동 주유소
대지699평 연건평215평(2층건물)용두초교서측인근
2006년건축 1,2층전용면적 각74평.1층카클리닉외사무실2칸
감정가20억7백 최저가14억4백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600평)정도. 상업. 주거3종. 준주거. 자연녹지.

쌍촌동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담협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일부 분할가능.

산막동 과수원 (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감나무 과수원, 남향. 황룡강변. 관리사 및 창고 허가득함.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당 15만원.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5억.보증금6,000만원 월 330만원.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주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현재 임야.

010-3616-8698. 062-233-2222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15,000평
▶건 물 : 9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건 물 :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